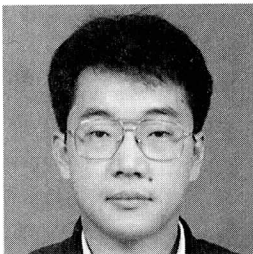


PC통신서비스 차별화 방안

'멀티시대' 다양함 속에서 솔루션 창출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설사 새로운 환경이나 문화가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질서는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윤리적인 문제나 정보시대의 새로운 법 질서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기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자.

-편집자주



이 한 순
(주)큰틀 대표

지난 88년에 PC통신이 우리들 곁에 선 보이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의 통신 환경을 주도해왔던 서비스는 문자 위주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문자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설립된 나우콤이 윈도우즈에서의 새로운 통신 환경의 제시를 하면서 다른 통신 서비스들도 점차 그래픽 환경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한 데이콤의 천리안 매직콜 서비스는 이러한 주류를 가장 잘 반영한 또다른 시도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통신의 그래픽화, 멀티미디어화는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굳이 천리안이나 나우콤에서 멀티미디어를 찾을 필요가 없이 이미 전세계 통신망인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멀티미디어 기술이 월드-와이드-웹(World - Wide - Web)이라는 줄여서 WWW라 부르는 화상과 텍스트, 사운드와 비디오 등의 다양한 매체가 포함된 통신 서비스를 접할 수 있었다. 이미 많은 TV광고나 글에서 멀티미디어란 말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다. 그럼 이 멀티미디어란 무엇인가.

예전에는 음악을 하려면 악기가 있어야 하고,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에 가거나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비이오기에 테이프를 넣은 후 봐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에서 TV를 시청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노래방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컴퓨터나 TV, VEDEO등과 같은 정보 전달 매체가 다른 매체와 결합된 것을 멀티미디어라고 한다. 컴퓨터와 결합된 멀티미디어중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사운드 카드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발짝 더 나아가 PC통신에도 멀티미디어 바람이 일고 있다.

새롭게 변모하는 화상 정보 서비스

맨 처음 PC통신에 나왔을 때만 해도 단순히 문자만 전달하고 채팅 정도의 도구로 활용되던 PC통신이 발전하여 불과 몇년 사이에 화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PC통신 서비스의 고급화 즉, 화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영똥하게도 컴퓨터 관련 업체들이 아닌 위너스 카드사, 엘지 신용 카드, 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등을 발행하는 정보성들이다.

그 중에서도 맨 처음 화상 정보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는 국민은행이

었다. 국민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잔고 확인이나 입/출금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치 통장을 펼쳐 들고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나온다. 그리고 각 지점들의 약도도 그림으로 출력된다.

국민 은행의 서비스는 화면의 화려함보다는 내실적인 면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화상 정보의 화려함은 100%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후발 주자인 엘지 신용카드, 위너스 카드 등의 서비스 업체들은 화상 정보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하이넷-P를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한 엘지 신용카드의 경우 화상 정보의 특수 기능인 애니메이션 기능을 도입하였고, 화면 처리에 있어서 무척 많은 부분을 신경쓴 것으로 보이며 향후 홈쇼핑이나 통신 판매의 영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엘지카드는 통신으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제품을 화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위너스카드, 엘지카드, 국민은행들이 사용 내역 조회, 서비스 사용 현황, 지점 안내, 공지 사항등을 서비스 하고 있지만, 앞으로 CATV나 대화형 홈쇼핑 서비스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누가 먼저 홈쇼핑 시장을 잡느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정보 서비스를 시작한 정보성의 부동산뱅크 PC통신 서비스는 새로운 화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하이텔이나 천리안에서는 분당 1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지만 하이넷-P에서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도 한번쯤 하이넷-P의 부동산뱅크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 바란다.

현재 부동산뱅크 정보 서비스는 일반 문자 형태의 정보와 화상 정보의 혼합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적재소에 그림과 문자를 결합해서 사용자가 보기 편할 뿐만 아니라 부분부분에 색깔을 다르게 하여 전체적인 구성을 살렸다. 또한 아파트의 평면도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노하우로 쌓인 정보를 각종 통계를 내서 도표 형식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화면 하단에는 미래 광고 시장을 겨냥한 광고가 출력되고 화면 우측에는 평면도나 매물 정보의 경우, 해당 매물의 사진까지 제공된다. 사진의 해상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2400BPS 환경에서도 크게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고속 모뎀이 보편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VideoTex 방식이 아닌 Gif 형식을 이용한 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좀더 멋진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존의 인식을 깨고 한 화면에 문자, 그래프, 사진 등의 복합적인 정보를 오밀조밀하게 제공하는 노력을 볼 때 내년쯤이면 좀더 확실한 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통신 서비스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는 PC통신과 새로운 분야의 정보 서비스 업체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화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통신과 멀티미디어의 결합

앞에서 멀티미디어는 T.V, 컴퓨터 등이 결합된 형태라고 했다.

멀티미디어

— 매스미디어, 매스컴, 매체 (정보를 전달하거나 교환하는 모든 것)
— 동시에, 여러개의

즉, 여러 개의 매체가 결합된 것이다. 매체로는 신문, 방송, 잡지, 영화등이 있다. 그런데 컴퓨터와 CD-ROM 타이틀이 결합된 형태와 더불어 컴퓨터 통신과 잡지가 결합된 형태인 스크린 북이 선보이고 있다. 현재 스크린 북을 제공하는 것은 단편 문학집, 무협지, 계간지 형태의 월간지, 장편 소설 등의 다양한 장르의 소설들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앞으로 좀더 다양한 장르의 서적들이 그림과 함께 제공된다면 기존 서적 유통의 새로운 방향과 아울러 독자와의 교감이 형성될 수 있는 새 분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운 받은 서적을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도구는 현재 공개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스크린 북이라고 명명된 본 도구는 공개 자료실에서 원하는 자료를 받은 후 내용을 볼 수 있는 일종의 고급 뷰어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스크린북의 가능성으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지만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과 앞으로 발전 방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크게 문제시 될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럼 간단하게 스크린북이라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살펴보자. 일전에 디스켓을 이용하여 몇몇 업체에서 월간지를 제작한 일이 있었다. 그 때 디스켓 월간지 형태로 발표된 것들은 화면이나 그래픽 처리가 상당히 우수했고, 또한 광고까지 삽입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스크린 북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래픽 처리 부분이 미약하고, 폰트 조정 기능 등이 없다. 그러나 서적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인 목차 보기, 페이지 넘기기, 끝 페이지로 이동하기, 맨 앞 페이지로 이동하기 등의 기능이 제공되며 책을 보다가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마지막 페이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해당 페이지로부터 내용을 보여 준다.

그러나 최근 점차 윈도우즈 환경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컴퓨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윈도우즈 환경의 솔루션이나 배경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면 훨씬 더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로운 출판 형태 '온라인 퍼블리싱'

온라인 퍼블리싱은 아직 시험 단계에 있지만, 스크린북의 미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온라인 퍼블리싱을 살펴 보기 전에 온라인 퍼블리싱과 전자책은 무엇으로 구분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온라인 퍼블리싱은 온라인상에서 서적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책은 기존의 인쇄 매체가 아닌 CD-ROM 타이틀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미세한 차이 하나로 온라인 퍼블리싱과 전자책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을 앞으로 다가올 컴퓨터 시대가 정보통신(정보를 상호 교환)시대이기 때문이다.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은 첫번째는 대화 기능으로, 책의 특정 페이지를 찾아 보거나 단어를 검색하는 기능이다. 두번째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기법으로, 연관 정보 검색하는 기능이다. 하이퍼텍스트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스무고개 형식으로 조건 검색을 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고급/중형/소형차를 살 것인지

를 결정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등을 결정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책에도 단점이 있다. 전자책을 보기 위해서는 기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기계라는 것이 마음대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피가 크므로 어느 곳에서도 책을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다. 그러나 이러한 커다란 단점을 무시할 만큼 전자책의 대화 기능과 하이퍼텍스트 기법은 가히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컴퓨팅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휴대가 간편하고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전자책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럼! 온라인 퍼블리싱은 무엇일까?

온라인 퍼블리싱은 전자책의 장점과 더불어 CD-ROM 타이틀 형태가 아닌 온라인 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를 잠깐 살펴 보자. 유명한 컴퓨터 분야의 월간지인 PC Magazine, PC Week, PC Computing, Computer Shopper등을 발행하는 공룡기업인 쥘데이비스사가 예전부터 CompuServe를 통해서 ZiffNet 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최근 새로운 형태의 'Interchange'라는 온라인 퍼블리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Interchange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도록 하자. 본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물론 컴퓨터 관련 정보 서비스이다.

부가적으로 전 세계 뉴스, 스포츠 관련 정보, 날씨, 증권 시세등과 같은 가정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컴퓨터 분야의 정보 서비스의 경우 크게 뉴스, 토론 광장, 구매 가이드, 공개 자료실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라 이브러리등이 제공된다.

일단 본 서비스의 초기 화면부터 모든 유저 인터페이스는 마치 CD-ROM 타이틀 형식의 전자 책을 보는 것 같이 그래픽이 뛰어나고 화려하다. 아마 추후에 온라인 잡지들이 출간된다면 본 서비스의 화면이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600BPS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윈도우즈 환경하에서 돌아가는 본 서비스에 대한 속도 문제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서비스의 몇가지 장점들을 살펴보면,

- 강력한 검색 기능 : 키워드, 문장속에 있는 단어, 제목, 날짜 등을 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 연결 기능 : 검색한 정보와 연관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
- 사용자 정의 디렉토리 : 자주 사용하는 탐색 경로를 저장해 놓았다가 언제든지 재 사용 가능.
- 자유 토론에 참여 : 언제든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진정한 멀티 태스킹 : 다운로드, 검색 작업 도중에 언제든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작업 :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으로 검색된 정보를 사용자 영역에 저장해 놓으면 자동으로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통신을 종료한 후 다시 내용을 볼 수 있음.

이상의 기능을 한가지씩 살펴보자. 첫번째 검색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주제나 특정 용어에 대한 빠른 검색을 행한 후에 검색된 정보를 바로 사용자 영역인 Inbox에 자동으로 저장한 후 나중에 오프 라인 상태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두번째 기능인 연결 기능은 일종의 온라인 하이퍼 텍스트 기능으로 특정용어와 연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특히 본 기능을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거의 처음 선 보이는 기능으로 윈도우즈 환경임을 최대한 이용하여 연관된 정보를 보기 위해 단지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되도록 구현되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통신 서비스에서는 텍스트 상태에서의 하이퍼 텍스트 환경의 구현조차 하지 못한 상태인데 반해 벌써 윈도우즈 환경의 서비스가 나왔다는 점은 놀랍다.

세번째 기능은 사용자 정의 디렉토리 서비스인 일종의 간이 스크립트 기능으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나 인덱스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6.0'의 혼잣말 기능을 잘 이용한다면 아쉬운 대로 구현이 가능하다.

네번째로 멀티 태스킹의 구현 기능은 최근 미국에서 선 보이는 통신 서비스들이 이미 구현하고 있는 기술로 공개 자료실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받는 도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다섯번째 오프라인 작업은 앞에서 설명한 Inbox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과 동일한 기능으로 검색된

정보를 자신의 Inbox에 드래그 앤 드롭만 하면 원하는 기사가 자동으로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다.

그리고 나중에 오프 라인 상태에서 해당 기사를 다 시금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일목요연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매 안내 테이블을 제공한다.

본 테이블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가격과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제품을 선별할 수 있다. 특히 각 항목마다 추천 상품, 추천 상품과 평가 자료, 비추천상품으로 구분하여 화면에 나타낸다.

그리고 만약 평가 자료가 있는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화면에 출력해준다. 여러 제품을 한 눈에 비교 할 수 있고,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 둘 수 있다.

또한 기술적인 팁이 제공된다. Tech Clinic이라고 불리우는 본 서비스는 예를 들어 모뎀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모뎀에 관련된 많은 팁이나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특별한 경우 질문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직접 연결까지 해준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개 소프트웨어와 웨어웨어를 등급을 부과하여 제공한다. 우리 나라의 공개 자료실과 다른 점은 제공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료를 검색할 때 무척 용이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추후 정보 고속도로가 설치되면 현재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CD-ROM은 점차 없어지고, 온라인 전자책이 등장하여 PDA와 같은 작은 컴퓨터로 무선으로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러한 시기는 약 3~4년 안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신에도 그래픽 유저 환경인 화성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고, 스크린 북과 온라인 퍼블리싱, 온라인 게임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욕심과 호기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앞에 덜컥 나타날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